

뉴파워플라즈마, '5000만불 수출의 탑' 수상...해외 고객다변화 쾌거

- ▶ 플라즈마 토탈 솔루션으로 반도체·디스플레이 시장 선도
- ▶ 전 세계 플라즈마 수요 급증 속 해외 매출 65.7% 달성

<2024-12-05>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글로벌 강자 뉴파워플라즈마가 '5000 만불 수출의 탑'을 수상했다.

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선도기업 뉴파워플라즈마(대표이사 양재영, 144960)가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'5000만불 수출의 탑'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. 수출의 탑은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,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다.

1993년에 설립된 뉴파워플라즈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, 반도체 미세화와 식각 공정에 필요한 플라즈마 핵심 모듈을 글로벌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. 주요 제품으로는 ▲플라즈마 클리닝 핵심 모듈 'RPS' ▲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핵심 모듈 'RFS'가 있다.

전 세계적으로 ▲반도체 공정 미세화 수요 증가 ▲초정밀 식각(적층 수 증가, 나노 미세화) 확대 ▲수율 증가(불순물 제거)를 위한 세정 장치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 플라즈마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뉴파워플라즈마의 토탈 솔루션 및 글로벌 대응력이 주목받고 있다. 특히, 해외 고객사 다변화로 수출 비중이 확대됐으며, 실제로 3분기 누적 수출액은 37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5.7%에 달한다.

뉴파워플라즈마 양재영 대표이사는 "최근 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식각 중요도 증가에 따른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고객사 및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"며, "앞으로도 글로벌 Big3 장비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는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 선점에 주력하겠다"고 전했다.

용어설명

RPS(Remote Plasma Source): 박막 및 증착, 식각 공정 후 챔버 내 부산물을 제거하는 모듈

RFS(Radio Frequency System):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고주파 전력 공급 장치